

이런 생각은 스노든 교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사스(SARS)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에 의해 우리가 “영원히 변해야” 한다고 충고한 것과 공명한다.⁴⁷⁾ 그의 충고는 역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는 그 이전까지의 삶과 일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도 참혹한 일을 겪어놓고도 병이 물러가고 생존자가 되면 즉각 옛 ‘노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또는 지젝(Slavoj Žižek)이 경고하듯 시스템을 약간만 수정하여 “예전처럼 매끄러운 일 처리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⁴⁸⁾ 필경 그런 회귀는 망각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스노든이 말하듯 우리가 불가역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를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역사야말로 그런 집단 기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감히 비유컨대, 역사학과 인문학에서 말하는 집단 기억은 어쩌면 의학에서 집단 면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47) Susan Gonzalez, “Historian Frank Snowden: May We Be ‘Forever Changed’ by Coronavirus,” Yale News (April 8, 2020). <https://news.yale.edu/2020/04/08/historian-frank-snowden-may-we-be-forever-changed-coronavirus> (검색일: 2020년 6월 20일)

48)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강우성 역 (북하우스, 2020), p. 20.